

신년벽두 '지식·신행 충전' 하고 싶다면

가까운 사찰 교리강좌에 가 보라!

불자 예절·상식 등 짧은 시간에 '소화' 가능

1월 17일 서울 호암사(02-803-4779). 2007년 호암사 기초교육 강좌가 시작되는 날이다. 삼삼오오 모여 앉은 불자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. 앉은 자리에서 성불이라도 할 듯 마음을 다잡고 부처님 말씀을 배우겠다는 각오들이 엿보인다.

차차석 연구교수가 맡은 첫 날은 기초교리로 시작했다.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강의는 기초교리 뿐만 아니라 비교종교학, 웰빙 시대의 건강, 보살사상과 윤리, 사찰예절 등 다양한 강좌로 4월까지 이어간다.

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초소양교육등 교양강좌들이 초보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. 서울 호암사를 비롯해 수원 용주사, 대전 만불선원 등 기초교육에 불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.

수원 용주사(031-234-0090)는 초심자를 위한 초심자반 강좌를 개설한다. 3월 14일(예정)부터 4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불자예절과 상식, 부처님의 생애, 기초교리 등을 가르친다.

남양주 봉선사(031-527-1951)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~오후 3시 기초교리강좌를 중심으로 교양강좌를 개최한다. 3월 6일 오전 10시 평

종부에서 입학식도 개최한다. 3월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~4시 경전반을 운영한다. 모집은 2월 28일까지.

대전 만불선원(042-222-3315)은 2007년 기초교리반을 운영한다. 불교에 처음 입문하는 불자들을 위해 기본예절부터 보살행의 의미 등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한다.

평창 월정사는 성보박물관 문화대학 3기생을 모집하고 있다.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와 우리역사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다. 불교문화에 대한 이론 강의와 현장 답사를 결합 강좌. 3월부터 12월까지 월 두 차례 월정사 대법루전에서 강좌가 진행된다.

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(053-474-8228)는 불교기초영어강좌를 개설한다. 1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된다.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학에서 연수한 조계종 국제포교사 우성연 강사가 강의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. 불교영어, 부처님의 생애, 교리, 사찰안 내 등이다.

강지연 기자 jygang@buddhapia.com

· 서울 호암사
매주 수요일 건강·예술도 배워

· 수원 용주사
초심자반 운영...4개월 집중공부

· 남양주 봉선사
기초교리 교양강좌·경전반 등

· 대전 만불선원
기본예절부터 보살행 실천까지

· 평창 월정사
성보박물관 문화대학, 현장학습도

·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
불교기초영어강좌, 부처님생애 등



부처님 감사합니다

부처님전 일주향 올리며 (중)

김남식 부산광역시 강서구

아버지의 사업은 연일 번창했습니다. 농장을 하 시던 분이 타 업종까지 손을 대면서 돈은 더 풍족해 졌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습 니다. 웬지 더욱 행복해야 할 우리집에는 걱정과 근심만 점점 늘어갔습니다.

급기야 아버지는 처음 보는 여자와 아이를 데리 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저보고 작은 엄마라고 부 르라고 하는 겁니다.

충격을 받아 몸져누운 어머니의 눈물 속에 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. 임보 였을까요? 과보였을까요? 아버지의 창고에 큰 불 이 나서 가까운 인명까지 앗아가는 대형사고가 터 졌습니다.

승승장구하던 아버지의 사업 은 한순간에 기울어졌습니다. 더 불어 같이 기울어가는 우리집안 을 보면서 저는 순간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. 제가 중심을 잡 고 어머니를 보살펴야했던만 아 직 어렸던 저는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죠.

모두가 싫었습니다. 점점 학교 공부에는 흥미를 잃어갔습니다.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쁜 짓 들에만 몰두했습니다.

경찰서 유치장에서 저를 빼내기 위해 굶 실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즐겼습 니다. 저를 위해 자존 심도 굽히고 경찰들에게 굶실거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 복수였던가 봅니다. 그렇게 못난 생각만 하던 철모른 어리석은 이가 바로 저였습니다.

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은 아팠지만 이미 마 음이 빠져떨어진 저에게 그 누구의 설득도 나뉘지도 울바르게 들리지 않았습니다.

손에 약간의 돈만 생기면 가족을 밥 먹듯이 했습 니다. 집을 나와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밤에는 업 소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되는데도 막 살았습니다.

"제발 이 엄마를 봐서라도 어떡하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"고 눈물로 호소하며 어머니는 저를 붙잡았습니다. 그러나 어리석음도 습이 되어 깊숙 이 있어 있어서였을까요? 어머니의 말씀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이제에 나에게 지켰다면서 나 플라라 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또다시 가족을 하 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후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생기기 되었습니다.

어머니가 암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 니다. 순간 심장이 멈추어 버린 듯,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으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. 이 모든 일이

나 때문이라는 자책이 들었습니다. 당장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. 누워계신 어머니께 "엄마, 잘못했 어"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.

다행히 못한 저에게 효도라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지 어머니는 더 이상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 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점점 회복해 가는 어머 니를 보며 저는 부처님 성모님 하느님 모두에게 두 손 모아 감사의 절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.

그동안의 잘못 살아왔던 인생을 반성하며 특전 사에 입대했습니다.

전역 후 제법 큰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. 직장 동료와 결혼도 하고, 눈에 넣어도



그림: 문병성

아프지 않을 아이를 가진 아 빠 가 되었습니다. 매일 매일 약의 힘으로 견디시는 어머니와 운신 이 힘든 아버지가 계시지만 저 게 최고의 버팀목이나 두 분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또 하나 의 즐거움이었습니다.

나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 에 손을 댓습니다. 무리한 사업 확장을 했고 그때쯤 불어닥친 IMF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 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.

어떡하든 부도를 막아 보려 했으나 여부족이 었고 결국 돈 때문에 가까운 생명까지 앗 아 가는 엄청난 죄를 짓

게 되었습니다.

그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유명을 달리하신 분 께는 받아들여지지 않겠지요. 불효막심한 자식이 저지른 순간의 실수로 또다시 가슴속 응어리가 졌 을 우리 어머니와 가족을 뒤로 한 채 15년이라는 중벌을 받았습니. 참회와 교화라는 이름으로 영 어의 몸이 된 지 8년...

도대체 왜 이래야만 했을까?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? 하는 자포자기 속에 얼마동안 주위와 는 답을 쌓고 세상을 원망하며 무엇이 진실이고 거 짓인지,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처 럼 저 자신을 옥죄이고 있었습니.

그저 숨쉬는 것이 한스럽고, 살겠다고 밥 한 숟 물 한 모금 삼키는 것이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습 니다. 아침에 눈을 뜰 수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눈 을 감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. 어떻게 하면 이 구차한 생명의 끈을 놓을 수 있을까, 그렇게 끝난 생각하고 있던 제가 어느 날 무심코 뒤적인 책 속 에서 쇠가모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를 만났습 니다. (계속)

들끓는 반항심 '특전사' 입대로 극복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죄 짓게 해

interview

불자약사보리회 유창수 신임회장



"봉사할 곳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야죠"

"우리를 부르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 봉사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."

불자약사보리회 유창수 신임 회장이 1월 14일 서울 종로공원 내 불자약사보리회의 무료부약 봉사현장에서 취임하며 이렇게 다짐했다.

"우리 보리회는 고통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성심 성의껏 노력해왔다" 며 "종묘공원에서부터 마포구장애인 진료소, 서울역노숙인 진료소 등 전국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건강상담과 필요한 의약품을 전해왔 다"고 불자약사보리회의 활동을 설명했다.

유창수 신임회장은 "연세 많은 어르신 자원봉 사자들이 맨 앞에서 굶은일을 마다 않고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" 며 "주변 에 사시사찰 보리회의 일을 도와 주셨던 이들이 있었기에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 다"고 밝혔다.

2년간의 임기로 불자약사보리회를 이끌어 가

게 될 유창수 신임회장은 "우리 불자들은 위로 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 을 구제하는 것을 방편으로 삼아야 합니다. 또한 철저한 육바라밀 실천수행으로 반야지혜를 체 득해 나니 불문 이 사회가 맑고 깨끗해져 불국토 가 실현되어야 합니다. 우리 불자약사보리회가 앞장서겠습니다."라고 포부를 밝혔다.

회장 취임식을 끝내자마자 유창수 신임회장은 바로 봉사현장으로 돌아갔다. 손이 굵을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도 진료를 받고자 하는 끝이 보이 지 않게 줄 서 있는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진료하기 위해서다. 약사들로 구성된 불자약사 보리회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단, 영림라이온스클럽 봉사단 등도 자원봉사에 나서 두루두루 어 르 신들을 보살폈다.

봉사현장에는 유창수 신임회장이 말한 포부가 훈훈한 온기를 더했다.

강지연 기자

불우이웃돕기 불서화전

정해년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오며, 금번 본 중단 부산교구 효산스님께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불서화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.

아 래

- 일 시 : 불기 2551(2007)년 2월 9일 오후 1시 - 2월 15일 (7일간)
- 장 소 : 금정문화회관 1층 전시실 (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맞은편)
- 주 최 :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
- 후 원 : 대한불교원효종

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

전화 02)735-0501 / 팩스 02)736-3509 / H·P (호산) 019-515-7930 / (화운) 010-9323-5121

2007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사업 공모

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불교학 발전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자들의 독창적이고 충실한 연구 성과를 공모하고자 합니다.

1. 제1회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

- 1) 공모주제 : 불교학 관련 자유주제
- 2) 지원자격 :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 이상(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은 제외)
- 3) 인원(상금) : 3명(1인당 300만원)
- 4) 제출서류 ① 연구계획서(A4 10매 내외, 자유형식) ② 이력서(주소·전화번호·e-mail 기입) ③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 및 목록 상 실적물 각 1부씩
- 5) 제출기한 및 발표 ① 제출기한 : 2007년 1월 24일~2월 10일 오후 5시까지 ② 선정 및 통보 : 2월 20일(선정자 한해 개별통보)
- 6) 주의사항 ① 선정자는 2007년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전반기 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. ② 발표논문은 학계에 이미 발표된 적이 없는 참신한 논문이어야 한다. ③ 선정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회의 발표 이후 논총 <선문화연구>에 게재하여야 한다.

2. 월례발표회

- 1) 발표주제 ① 한국근현대불교사와 사상의 주요쟁점 및 연구방법론 ② 한국근현대불교문화(불교문학·불교음악·불교미술 등) ③ 한국근현대불교사와 선학원 ④ 한국근현대불교 관련 기타 모든 분야
- 2) 원고분량 : A4 5~6매
- 3) 발표자격 : 박사과정 이상인 자
- 4) 발표일시 : 2007년 3월 3일(시간·장소 추후 공지)
- 5) 신청기간 : 2007년 1월 24일~1월 31일 오후 5시까지
- 6) 특 전 ① 발표비 : 1인당 30만원 ② 본 연구원 논총 <선문화연구>에 논문 게재 ③ <선문화연구>에 논문 게재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

3. 문의 및 서류접수

- 주소 : (우)110-2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한국불교선리연구원
- 전화 : (02)734-9653, 팩스 : (02)734-3410

